



#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Pontifical Foundation of the Catholic Church, Aid to the Church in Need

전화: 02)796-6440 팩스: 02)796-6439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67 8층 (신수동, 대승빌딩)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후원계좌: 신한 100-031-121620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idtothechurchinneed

제 8호 · 2016.12



어둠 속 빛나는 작은 촛불! 평화로운 성탄을 간절히 기원하는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아이들 ©Carole Al-Farah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드럽고 겸손한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협상이나 정치적 타협, 혹은  
경제적 계약의 결과가 아닙니다.  
평화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2016년 9월 20일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

##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류에게 예수 성탄 대축일만큼 문화적이고 예술적이며 또한 가족적인, 즉 진실로 인간에게 풍성한 잔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현재까지 우리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해를 기원 원년으로 삼는다는 사실 만으로도 우리는 이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탄생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작은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신비와 기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훌륭한 책도 이 기적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깊은 말로 복된 성탄을 기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성탄을 축하하는 것은 진정 어려운 일입니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정치 권력자들이 이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세계청년대회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역설하셨습니다.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1914년에 한번(제1차 세계대전),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또 한 번의 전쟁(제2차 세계대전)을 치렀

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평화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황님께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탄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이들이 고통에 허덕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까요?

억압받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의



**사랑은 선을 행하는 한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난민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희망을 놓치지 않은 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메시지를 따랐던 베들레헴의 목동들처럼,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의 메시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서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증명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5, 3-5) 겸손하고 자애로운 사랑, 구유와 십자가로 상징되는 이 사랑은 군대, 정치, 경제에 있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전쟁 무기 구입을 위해, 전쟁 피해 복구를 위해 드는 천문학적 비용에 비하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노력은 한낱 작고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진정한 사랑은 선을 행하는 한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라크인들과 시리아인들만이 전쟁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거대한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

께 성탄과 연말 분위기를 내기 위한 가벼운 후원을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분께 진정한 신앙을 요청합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새로운 시대가 태어남을 가슴에 세기는 신앙을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을 베푸시는 데 절대 지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만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된 성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르틴 바르타 신부  
국제 ACN 지도신부



# 이번 성탄절, 중동의 형제자매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시리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국에 도착한 시리아 소녀,  
자라 말록(Jara Mallouk)의 그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곧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기쁜 날의 중심엔 한 아기가 있지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 축제를 맞이할 기쁨에 가장 설레는 이들은 아이들입니다. 아마 선물을 받을 기대 때문이겠지요.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의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성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당시 중동에는 이주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마태오 복음은 헤로데 왕이 사내아이들을 학살한 탓에 성가정이 이집트로 피난을 해야 했다고 전합니다. 마리아와 요셉께서도 위험한 여행길에 올라야 했던 것이지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중동의 수많은 아이들이 아기 예수님과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기적처럼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아이들의 솔직한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을 때 그림을 그리게 하지요. ACN은 시리아 전역 2,000여 곳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일상, 걱정, 소망, 기도 등을 종이에 담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림을 통해 아이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아이들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을 주목하고자 한 것입니다. ACN은 유럽의회 의원들이 그림을 그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화상통화(skype 컨퍼런스)를 기획하였고, 아이들의 그림으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ACN 한국지부에도 그림이 여러 장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CN and ME(Middle East: 중동), ACN과 중동 그리스도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성탄절, 중동의 형제자매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시리아의 아이들은 우리에게

그림을 선물하고, 우리는 보답으로 인사와 기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ACN and ME’ 캠페인에 참여해 주세요! 시리아 아이들을 향한 여러분의 인사와 기도를 메시지, 동영상 등을 통하여 보내주세요. (옆 장에 자세한 내용과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주인공들은 멀리 한국에서 보내온 소식에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물론 또한 중동의 아이들과 그 가족들은 우리의 재정적 지원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알레포의 애니 수녀님께서서는 난민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의복, 식량, 의약품 등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마르마리타라는 곳에서는 26세 마즈드 잘흠(Majd Jalhoum)과 같은 청년들이 계속되는 폭격과 박해를 견디다 못해 피난 온 난민들에게 가장 긴급한 물질적 그리고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요한 1,9-10)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시리아의 아이들의 얼굴에서 구세주의 얼굴을 봅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 홀로 떨지 않도록 우리의 사랑을 전하여 줍시다.

요하네스 콜라우자

ACN 한국지부장 드림



“사랑하는 아기 예수님, 이번 성탄에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에게 희망을 주세요.”

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중동 소녀 아말의 성탄 기도에 함께해 주세요!

웹사이트 <http://acnme.churchinneed.or.kr>  
유튜브 <http://youtu.be/u1lyH8kCpEw>  
페이스북 @aidtothechurchinneed

QR코드



## 시리아에서 전해 온 증언

ACN과 협력하며 활동하시는 시리아 교회 지도자 및 관계자들의 증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그레고리오 3세 라함  
총대주교님



라타키아교구장  
양투앙 슈비어 주교님



알레포의 애니  
데메르지안 수녀님



마르마리타의 청년  
마즈드 잘흠 씨

시리아 전국에서 2,000여 개의 학교 학생들이 시리아의 평화를 위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대다수의 그림은 전쟁의 참상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절망만이 아닌, 희망을 노래합니다.

시리아 아이들의 바람이 담긴 소중한 그림들이 한국에 도착하여, ACN 한국지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 시리아 어린이들이 그린 “시리아의 평화”

시리아 아이들로부터 전해 받은 소중한 그림들을 보다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ACN 한국지부에서 온라인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전시 관람 방법을 통해 시리아 아이들의 그림들을 만나보세요.

### 온라인 전시회 관람 방법

인터넷 [www.churchinneed.or.kr/peace-for-syria](http://www.churchinneed.or.kr/peace-for-syria)  
또는 <http://goo.gl/17RmkP>

QR코드



(네이버 앱 또는 다음 앱으로  
스캔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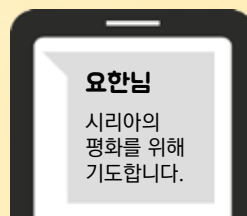


## 시리아 어린이들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전해 주세요

시리아 아이들의 그림에 대한 응답으로, 한국에 계신 ACN 가족 여러분의 기도와 인사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시리아의 평화와 중동 지역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를 문자 또는 영상 메시지로 전해 주세요.

### 전달 예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 전달 방법

(보다 자세한 방법은 동봉된 리플렛을 참고해 주세요.)

휴대폰

010-7475-6440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SNS 해시태그

#ACNME 또는 #ACNandME



# 남아 있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시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최초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저서들을 아랍어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들은 바그다드에서 철학과 자연과학을 가르쳤고, 아랍 철학자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세계가 조금 더 이성적이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희망의 가능성을 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천 년이 넘는 동안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의 그리스도인들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서아시아의 역사를 새로 써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교의 요람인 서아시아 지역을 떠나지 않는 한, 그들의 증언은 계속 힘을 발휘하며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닿을 내릴 것입니다.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향이란 태어난 곳 이상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희망의 정신이 깃든 곳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런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당장 머물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것은 희망에 집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난민 가정들에 식량 꾸러미를 나누어 주는 일은 개개인의 생명을 구하는 차원을 넘어 평화의 사도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두 떠난다면 서아시아는 영혼을 잃은 땅, 과거가 잘려 나간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고향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 땅의 오늘과 내일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이 불확실하지만, 라타키아(Lattakia)의 이사 아브도(Issa Abdo) 신부님께서는 오늘도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하여 난민 가정에서 식량 꾸러미를 나누어 주십니다. 꾸러미에는 밀가루 1kg, 쌀 0.5kg, 설탕, 국수, 식용유, 우유가루가 들어 있습니다. 한 꾸러미당 55유로(약 7만 원)로, 2주 분량의 식량입니다.

비누, 치약, 샴푸 등이 들어 있는 작은 꾸러미와 함께 배분될 때도 있습니다. 난민 가정들은 이를 보배와 같이 여기는데, 생필품을 얻을 다른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ACN은 앞으로 난민 가정들의 6개월 치 임대료를 지불할 것입니다. 난민 가정 구성원들은 최소한 6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찾고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집은 가족들의 정신, 삶의 방식, 역사가 머무는 곳입니다. 매 순간 의식적으로 인지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누구도 난민들을 감싸 주지 못하지만, ACN만이 그들 곁에서 비를 피하는 지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난민 상황에 대한 통계 자료

6년 가까이 지속된 내전으로 인해 시리아 인구 3/4은 절대적 빈곤 상태에 빠졌습니다.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해 생존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무려 1,35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 900만 명은 기본적으로 식량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고향으로부터 쫓겨난 난민이 된 사람들은 모두 1,100만 명이며, 시리아 국내 난민은 650만 명입니다. 한 국제 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5만 명에서 47만 명으로 추정되며, 부상자는 190만 명에 달합니다.

이번 성탄절, 중동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http://acnme.churchinneed.or.kr>



마침내 머물 곳을 찾은 모술의 그리스도인들



안전한 집을 구한 아미네 씨는 재봉질로 가족들을 부양합니다.



알레포에서 장애를 가진 아들과 피난 온 리타,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중동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성탄 선물

## 라벨 산악지대 난방비 지원: 12만 원

시리아와 이라크 산악지대의 겨울은 지독하고 혹독합니다. 많은 난민들은 작은 컨테이너나 단칸 방에 지낼 곳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저히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땀감으로 나무를 베거나 쪼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엄격한 벌금형이나 감옥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사면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타키아(Lattakia) 교구는 해발 7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교구에는 1천 가구 정도가 거주하며, 이 중 600가구는 자녀나 부양 노인을 포함합니다. 100유로(약 12만 원)면 한 가구가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는 난방비를 마련하기 위해 후원을 요청합니다. 혹시 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 중동 지역 성직자 지원: 6만 원

모여 있으면 조금이라도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난민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미카엘 모우라니(Mikael Mourani) 신부님은 86세로 선종하셨습니다. 파울 코리(Paul Khoury) 신부님은 85세이십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고단하고 가난했던 사제 생활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분들이 태어나셨던 때 시리아는 프랑스의 위임통치령 하에 있었고 알라위파 지역은 자치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리아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 후 국지전과 독재가 뒤따르더니 이제 시리아는 내전에 휩싸였습니다. 신부님들께서는 일생을 끊임없는 기도로 보내셨습니다. 신부님들께서는 마지막 미사를 집전하셨던 순간까지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온몸으로 느끼셨습니다. 이제 신부님들께서는 미사를 봉헌하실 수 없습니다. 미카엘 신부님께서는 성작의 마지막 성혈 한 방울까지 마신 후에 지난 여름 하느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파울 신부님께서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지금은 거동을 하지 못하십니다. 하비브(Habib), 엘리아(Elie), 유세프(Youssef), 이브라힘(Ibrahim), 장(Jean), 파에즈(Faez), 이사(Issa), 바삼(Bassam), 타누스(Tannous), 볼로스(Boulos), 알라인(Alain), 니달(Nidal) 등 라타키아 교구의 여러 동료 신부님들께서 매일 두 신부님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하십니다. ACN 후원자 여러분께서도 미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전쟁으로 서아시아 성직자들의 모든 수입원이 차단된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미사 봉헌금은 이곳 사제들의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이곳 교구 홈스(Homs)의 사제 열여덟 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녀님 열 분께서도 여러분의 도움으로 생계를 이어가십니다. 이곳 성직자들은 황무지에서 포도밭을 개간하십니다. 한 달에 50유로(약 6만 원)로 성직자 한 명의 생계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동참하실 분이 계신가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던  
파울 신부님

## 기저귀 및 우유 지원: 3만 원

어머니들은 녹초가 된 몸으로 아기들을 품에 안고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200여 명의 아기들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아기들은 계속 칭얼거리며 울니다. 젖을 충분히 먹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피부는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얼마나 따갑고 쓰릴까요! 아기와 어머니들은 전쟁난민 중에서도 가장 무력하고 약한 존재들입니다. 다행히 그들은 지금 우유와 기저귀를 제공받습니다. 북시리아 마로니트 교회 앙투앙 슈비어(Antoine Chbeir) 주교님께서는 위원회를 설립하셨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얼마나 되는지, 아기는 몇 명인지 등을 조사하고 기저귀는 어디서 구하며, 우유와 젖병은 어디에서 제공할지를 결정하십니다.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원이 필요한 아기들은 이제 650여 명에 달합니다. 교구는 아기들을 지원하기 위해 하루하루 바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 아기가 배불리 먹고 깨끗한 기저귀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한 달에 25유로(약 3만 원)가 듭니다. 이 아기들의 이모, 삼촌이 되어 주실 분이 계신가요?

배부르게 먹고 깨끗한 기저귀를 차서 기분이 좋은 아이,  
어머니도 가족들도 덩달아 행복합니다.





## “이 고통을 얼마나 더 견뎌야 할까요?”

시리아 여성 그라시아(Gracia) 씨는 미용사입니다. 드라이기, 빗, 가위, 머리끈 등만 있으면 그녀는 다시 일할 수 있고,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클라우딘(Claudine) 씨는 재봉사입니다. 낡은 재봉틀 하나만 있어도 그녀는 다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라시아 씨와 클라우딘 씨에게는 이를 구입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착한 목자 수녀회 수녀님들께서 물품을 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하십니다. 그러나 수녀님들 역시 용기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치지 않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얼마나 더, 도대체 얼마나 더 견뎌야 하나요? 악의 추종자들이 이렇게 날뛰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나요? 이 나라에 과연 평화가 오기는 할까요? 시리아인들은 이 폭력을 얼마나 더 견뎌야 할까요? 벌어진 상처는 언제쯤 아물 수 있을까요?” 수도 다마스쿠스의 착한 목자 수녀회 롤리타(Lolita) 수녀님께서 외치십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집이 파괴되고, 미래가 산산조각이 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철저히 짓밟혀야 하나요? 왜 우리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장애를 얻거나, 노예가 되어야 하나요? 얼마나 더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 건가요?” 전쟁에 지친 이들이 목 놓아 외칩니다.

롤리타 수녀님께서는 수많은 고통의 역사들을 알고 계십니다. 수녀님께서는 매일 난민 가정들을 방문하시는데, 수많은 가족들이 그 모든 끔찍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끝없이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아흐메드(Ahmed) 씨는 락카(Raqqa)에서 아내와 두 딸 히바(Hiba), 셀레나(Selena)와 살았습니다. 아흐메드 씨는 예전에 작은 양장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장사가 잘 되었고, 아흐메드 씨 가족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داع시(IS)가 마을로 들어닥쳤습니다. “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총을 쏘아 댔어요. 집들을

불태웠고요. 저는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등 뒤로 총알이 퍼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총알이 왼쪽 다리를 관통했습니다. 등에도 박히는 느낌이 났어요. 저는 안고 있던 셀레나를 엄마에게 보내며 도망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뒤따라 달렸습니다.” 아흐메드 씨 가족은 우선 이웃 마을의 친척 집에서 잠시 묵었고, 다시 채비를 하여 다마스쿠스를 향해 떠났습니다. 아흐메드 씨는 하던 말을 멈추고 먼 곳을 응시하셨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내와 천사 같은 두 아이와 함께 이곳에서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요.” 아흐메드 씨의 부인은 남편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습니다. 총상을 당한 후로 아흐메드 씨는 매일 밤 손이 저려 고생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가만히 속삭입니다. “당신의 우리 삶을 비추는 촛불과 같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우리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요.”

시리아 전쟁은 6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롤리타 수녀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년입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울 시간, 가족들이 악몽에 시달리는 대신 꿈을 현실화하는 시간,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이 태어나야 하는 시간, 젊은이들이 새로운 부부로 탄생해야 시간, 우리는 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이 고통을 얼마나 더 견뎌야 할까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수녀님께서는 단 한 가지 사실밖에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동료들과 함께 작은 실천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 가장 작고 약한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모든 영혼은 하느님께 소중하며, 모든 생명은 의미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기도이며, 우리를 부르는 하느님의 음성입니다.” 수녀님들께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는 수녀님들을 도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용기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리디아 수녀님은 상처받은 아이와 어머니 곁에 항상 머무십니다.

위로와 용기를 전하시는 착한 목자 수녀회 롤리타 수녀님



##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 재건입니다

“우리는 자비의 아버지께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비의 표징과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강력한 신앙의 선물을 구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리아 홈스(Homs) 근처 쿠사이르(Qusair)에 이 강력한 신앙이 깃들어 있습니다. 쿠사이르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작은 도시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둘씩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이 힘을 모아 처음으로 한 일은 전쟁으로 극심하게 파괴된 성 엘리아 성당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을 몰아낸 전쟁의 주범들은 이제 다행히도 이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일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스스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무엇보다도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린 소녀, 자이나 카소하(Zeina Kasoha)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이 도시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자이나는 좋은 교육을 받아 고향을 위해 언젠가 훌륭한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소녀는 우리에게 자신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 후원자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어린 자이나를 비롯한 쿠사이르 사람들의 소망을 이룰 수 있게 해줍니다. 이들은 성당의 종을 다시 매달고, 유령도시나 마찬가지로 고향에서 다시 삶의 터전을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이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합니다. 성당 종소리는 중동 땅에 커다란 상징이 되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곳에 선한 의지를 가진 이들이 있다는 의미, 그리하여 평화가 머문다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속한 땅입니다.” 루이스(Louis) 신부님께서 여러 방과 교실을 포함한 성당 건물을 재건하는 원대한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이곳은 교리교육 기관으로 기능할 것이고, 수녀님들께서 머무실 수 있는 포근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어린 자이나와 루이스 신부님을 비롯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화를 구축하며 복음의 소식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마음으로 자비의 표징과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비록 두 손은 비어 있지만, 그들의 두 눈은 반짝입니다. 우리도 중동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현장에서, 그들 곁에서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 그리스도인이 없는 난민 캠프

중동 지역 난민은 450만여 명에 달합니다. 그중 터키 난민캠프에서 250만 명, 레바논 난민캠프에서 110만 명, 요르단 난민캠프에 80만 명이 거주합니다. 이 난민 캠프들은 모두 유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그리스도인 난민들은 친지나 친구 집에 머물거나, 성당 건물에서 생활하며 성직자들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대다수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터키 남서부에서 약 100명, 동부에서는 대략 1천 가구의 그리스도인들이 ACN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인 난민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레바논과 요르단, 터키의 성직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물질적 그리고 영성적 도움을 전해야 합니다.





## “하루라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대규모 난민 사태가 시작된 2014년 이래로,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 가족 여러분은 우리 곁에 머무르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ACN이 없었다면, 우리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북이라크 아르빌(Erbil) 대교구장이신 와르다(Warda) 대주교님께서는 결코 과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와르다 대주교님은 모술과 니네베 평원에서 피난을 온 1만 2천여 그리스도교 가정과 함께하십니다. 이들은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곳의 난민들은 하루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 삶의 터전에서 다시 일하며 생활하기를 고대합니다. 작년 성탄에 난민 아이들은 ACN 으로부터 신발, 외투, 장난감 등이 담긴 성탄 꾸러미를 전해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작은 선물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기억합니다. 와르다 대주교님과 난민 가정들은 니네베 땅에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며 후원자 여러분을 위해 매일 하느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국제 ACN 대표  
요하네스 헤르만

Johannes Freiherr  
Heereman

##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모 마리아께서 100년 전 파티마에서 양치기 아이들에게 발현하셨습니다. 세상이 전쟁으로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종전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묵주기도를 하라고 명하셨고, 아이들은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파티마 성모님께서 명하신 바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또 다시 전쟁으로 세계가 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제3차 세계대전이 국지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제 ACN 총사무국은 파티마의 성모 발현 100주년을 기념하여 2017년 9월 13일, 파티마로 떠나는 순례 여행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ACN 가족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적인 도움이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통해 전쟁을 끝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서아시아(중동)의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전쟁 피해자들의 상처를 감싸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성탄을 맞아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실천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의 화개와 평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저는 후원자 여러분 모두에게 이웃과 함께하는 복된 성탄을 기원합니다.

*Johannes Heereman*

##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 성탄 선물을 대신하며

매년 손주들 성탄 선물로 쓰는 돈과 편지를 ACN에게 보냅니다. 올해는 자녀들과 상의하여 기쁜 마음으로 알레포의 가정들을 위해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랑스의 노부부

###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ACN 연간 보고서를 읽고, 저는 이제 하루도 더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작은 정성이 좋은 곳에 쓰이길 바랍니다. 저는 매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세상을 위해, 그분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을 위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후원자

### ACN의 활동에 깊이 감명받습니다

ACN은 박해받고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움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회적, 선교적 소명을 수행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끊임 없는 열정과 에너지에 항상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명을 위해 항상 기도할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주교

###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ACN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후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제 기구 중 하나입니다. 중동 지역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봉사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캐나다에서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www.churchinneed.or.kr  
@aidtothechurchinneed  
@acn\_korea  
info@churchinneed.or.kr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67 8층  
전화: 02-796-6440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교황청  
재단

